# **연어**

**텍스트, 화이트보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안도현 지음**

**20213032 권영훈**

**연어를 읽으면서 은빛 연어라는 이름은 등 푸른 다른 연어들과는 달리 등이 온통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작중에서 은빛 연어는 남들과는 다른 외형을 가진 별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어들은 은빛 연어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면서 은빛 연어를 싫어하고 따돌립니다. 은빛 연어는 자신의 몸이 온통 은빛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오직 혼자 밖에 없다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연어 무리에서 지도자인 턱 큰 연어는 은빛 연어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은빛 연어는 이 상황을 답답하게 느끼고 항상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어 합니다. 은빛 연어는 누나에게 동무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투덜거리지만 누나는 따돌리는 게 아니라 너를 감싸는 거라고 말한다. 은빛 연어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누나를 답답해하며 누나의 간섭을 귀찮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대신에 물수리의 밥이 되고 만 누나 연어를 떠나 내며 누나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은 이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 은빛 연어는 자신의 동반자인 눈 맑은 연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눈 맑은 연어와 함께 초록강으로 가게 됩니다. 초록강으로 가며 초록강과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를 소통하며 가다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과 모두가 두려워하는 높은 폭포를 사이에 두고 은빛 연어는 두려움 없이 폭포를 뛰어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연어에게는 연어만의 길이 있는 법. 힘겹게 초록강을 거슬러 오르며 진정한 연어의 삶을 다한 은빛 연어는 초록 강 상류에 알을 낳고 눈 맑은 연어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작중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어. “– 59p이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남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인연’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빛 연어에게도 은빛 연어의 누나, 눈 맑은 연어, 초록 강 등 다양한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강을 거슬러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 초록강은 은빛 연어의 의문들이나 질문들을 적절하게 조언해주면서 은빛 연어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조언자를 자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처럼 나도 타인의 배경이 되거나 되어주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중, 고등학교 때 진로, 진학 등등으로 수많은 걱정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에게 조언을 주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나도 남들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좋은 영향력 즉 타인의 배경이 되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 같다.**

**다음으로 은빛 연어가 초록강에게 은빛 연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연어 답게 살기 위해 폭포를 뛰어 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은빛 연어에게 연어 답게 산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들이 쉬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강의 상류로 가도 좋지만 은빛 연어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다 보면 훗날 쉬운 길을 앞에 두고 어려운 폭포를 뛰어오르고 싶은 연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88p**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고민거리를 앞에 두고 다양한 선택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조합하여 선택한다. 그 선택 중에 만약 연어에서의 예시처럼 훗날 노력과 성취감 없는 쉬운 길을 앞에 두고 노력과 성취감 있는 어려운 길을 시도하려는 도전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의 교훈을 통해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나’라는 존재는 이세상에서 배경일수도 있고 남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존재 일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과한 자부심은 역으로 좋지 않다. 괜히 높은 자부심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변사람 들과의 소통을 통해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처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좋을 것이다.**